2022 100발 100중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 변형문제집

고1 국어 문학

3개년 학평 기출문제 및 변형문제 수록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최근 3개년(2019~2021학년도) 고1 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학영역의 지문 및 기출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패턴화된 확인 문제와 기출 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 학교 시험은 물론 학력평가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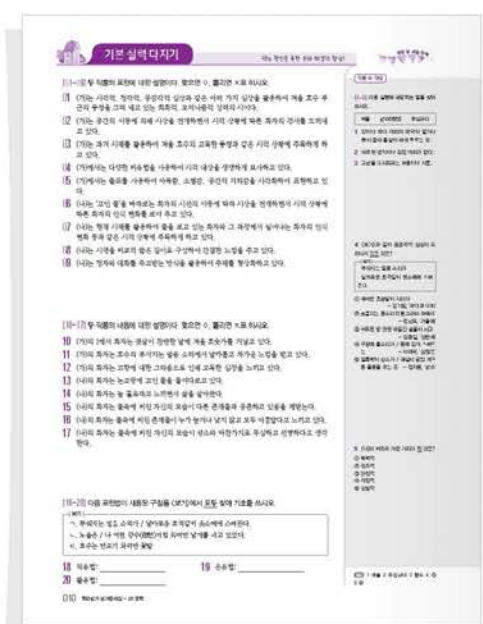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첨삭 해설과 중심 내용 제시로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시각화하여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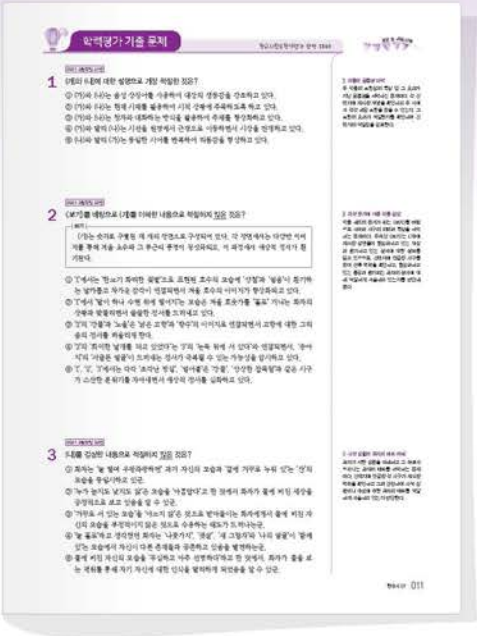
- 작품의 구조나 핵심 내용 등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거나 도식화함으로써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작품 이해의 길라잡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를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실력 다지기

패턴화된 문제를 통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문제: 작품의 표현상 ·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서술 방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문제: 작품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속 개념: 보조단에 '작품 속 개념'이라는 코너를 두어 작품에 제시된 주요 어휘와 작품의 특징이나 성격 등을 문제화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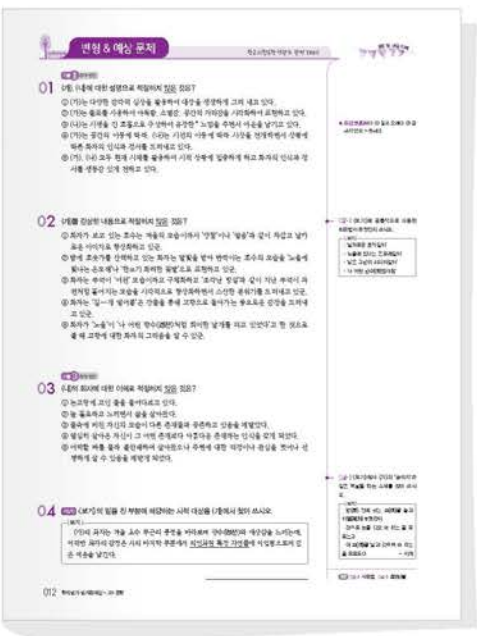




학력평가 기출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과 풀이 전략을 제시하여 기출 문제의 유형 파악과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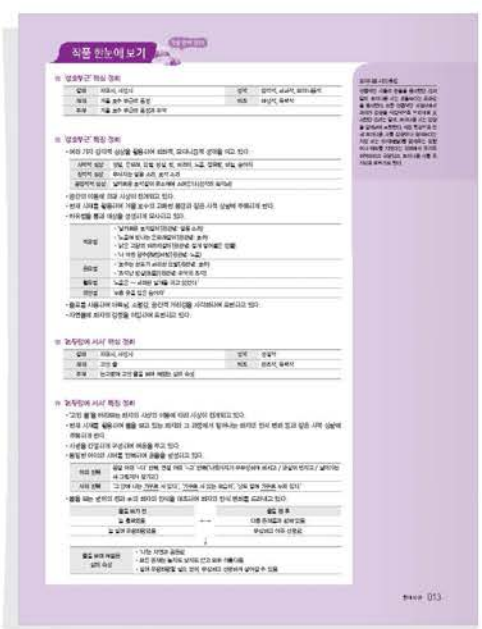
- 출제 유형 및 풀이 전략: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을 짚어 주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풀이 전략을 통해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식+', '참고', '어휘 풀이' 등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작품이나 문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심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형 & 예상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변형한 문제와 학교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변형 문제: 핵심 기출 문제의 발문이나 선택지, 〈보기〉 등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예상 문제: 작품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서답형/서술형 문제: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 핵심 내용 등을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서답형/서술형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양한 확인 문제: 보조단에 작품이나 문제 이해에 필요한 확인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의 핵심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을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작품의 특징이나 구조 등 작품 이해를 돕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배경지식: 보조단에 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 례

Ⅰ. 현대시

				학습일
01	2021학년도 03월	성호부근 / 논두렁에 서서	008	월 일 □
02	2021학년도 06월	성탄제 / 수의 비밀	014	월 일 □
03	2021학년도 09월	춘설 / 첫사랑	020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분수 / 틈, 사이	026	월 일 □
05	2020학년도 03월	추억에서 / 담양장	032	월 일 □
06	2020학년도 06월	초록 기쁨 – 봄숲에서 / 오월	038	월 일 □
07	2020학년도 11월	고야 / 겨울산에 가면	044	월 일 □
08	2019학년도 06월	여승 / 가재미	051	월 일 □
09	2019학년도 11월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 백두산을 오르며	056	월 일 □

Ⅱ. 고전 시가

				학습일
01	2020학년도 09월	어부사시사 / 초당춘수곡	064	월 일 □
02	2020학년도 11월	훈민가 / 복선화음록	070	월 일 □
03	2019학년도 09월	유민탄 / 장육당육가	077	월 일 □

Ⅲ. 시 복합

				학습일
01	2021학년도 03월	도산십이곡 / 인형과 인간	084	월 일 □
02	2021학년도 06월	십 년을 경영ᄒᆞ여~ / 농가구장 / 접목설	091	월 일 □
03	2021학년도 09월	매화사 / 향기 있는 사람	098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표해가 / 여행	105	월 일 □
05	2020학년도 03월	오우가 / 꽃 출석부 1	112	월 일 □
06	2020학년도 06월	태산이 높다 ~ / 사청사우 / 이옥설	119	월 일 □
07	2020학년도 09월	눈 오는 지도 / 만나는 법 / 떠 있는 삶	124	월 일 □
08	2019학년도 03월	방옹시여 / 너의 목소리	132	월 일 □
09	2019학년도 06월	잠노래 / 귓도리 저 귓도리 ~ / 어부	138	월 일 □
10	2019학년도 09월	삭주구성 / 당신 / 길의 열매 집을 매단 골목길이여	145	월 일 □
11	2019학년도 11월	황계사 / 봄의 단상	152	월 일 □

Ⅳ. 현대 소설

				학습일
01	2021학년도 03월	도도한 생활	160	월 일 □
02	2021학년도 06월	복덕방	167	월 일 □
03	2021학년도 09월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173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선학동 나그네	180	월 일 □
05	2020학년도 03월	리기다소나무 숲에 갔다가	187	월 일 □
06	2020학년도 06월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194	월 일 □
07	2020학년도 09월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201	월 일 □
08	2020학년도 11월	버들댁	207	월 일 □
09	2019학년도 03월	당제	213	월 일 □
10	2019학년도 06월	착한 사람 문성현	219	월 일 □
11	2019학년도 09월	힘센 봉숭아	225	월 일 □
12	2019학년도 11월	맹순사	231	월 일 □

Ⅴ. 고전 소설

				학습일
01	2021학년도 03월	토공전	240	월 일 □
02	2021학년도 06월	흥부전	247	월 일 □
03	2021학년도 09월	태원지	254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정비전	261	월 일 □
05	2020학년도 03월	최고운전	268	월 일 □
06	2020학년도 06월	영영전	274	월 일 □
07	2020학년도 09월	최현전	280	월 일 □
08	2019학년도 03월	신유복전	286	월 일 □
09	2019학년도 06월	매화전	294	월 일 □
10	2019학년도 09월	서해무릉기	301	월 일 □
11	2019학년도 11월	송부인전	308	월 일 □

Ⅵ. 소설 복합, 극

				학습일
01	2020학년도 11월	임진록 / 명량	318	월 일 □
02	2019학년도 03월	대장금	326	월 일 □

I

현대시

현대시는 문학 영역의 대표적인 제재로,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쓰인 시들을 말한다. 고전 시가에 비해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 많아 어떤 작품이 출제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시 문학사에서 시기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주요 작가의 대표 작품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작가의 작품 경향 등을 잘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01 2021학년도 03월 성호부근 / 논두렁에 서서

02 2021학년도 06월 성탄제 / 수의 비밀

03 2021학년도 09월 춘설 / 첫사랑

04 2021학년도 11월 분수 / 틈, 사이

05 2020학년도 03월 추억에서 / 담양장

06 2020학년도 06월 초록 기쁨 - 봄숲에서 / 오월

07 2020학년도 11월 고야 / 겨울산에 가면

08 2019학년도 06월 여승 / 가재미

09 2019학년도 11월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 백두산을 오르며

성호부근 _ 김광균 / 논두렁에 서서 _ 이성선

2021학년도 3월

(가)는 겨울 호수 부근의 풍경을 감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한 시이고 (나)는 논두렁에 고인 물을 바라보며 자신과 주변 존재들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시로,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하는 표현상의 특징 면에서 공통적으로 묶였다.

가 1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숴지는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1]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 1연: 달빛이 비치는 겨울 호수의 차가운 정경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2]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호수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이 되고

▶ 2연: 호숫가를 거니는 화자의 쓸쓸한 모습

여윈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氷雪)이 눈부신 빛을 하다.

▶ 3연: 환상 속에 떠오르는 추억

2

낡은 고향의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 4연: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얼어붙은 강물의 모습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 어린 **향수(鄕愁)**[3]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 5연: 차창 밖 황혼녘의 풍경

3

앙상한 잡목림 사이로
한낮이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旗幅)[4]을 떨어뜨리고

▶ 6연: 잡목림 사이로 보이는 하늘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한마리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부끼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논둑 위에 서 있다.**

▶ 7연: 서글픈 얼굴로 논둑 위에 서 있는 송아지 한 마리

나 갈아놓은 논고랑[5]에 고인 물을 본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햇살이 번지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 **나의 얼굴**이 들어 있다.

늘 홀로이던 내가 /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모두가 **아름답다.**

▶ 1~10행: 물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평등하고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 본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 11~14행: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임.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늘 떨며 우왕좌왕[6]**하던** 내가

저 세상에 건너가 서 있기나 한 듯

무심하고[7] **아주 선명하다.**

▶ 15~18행: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다름을 인식함.

어휘 풀이 ❶ **호적(胡笛)**: '태평소'를 달리 이르는 말. ❷ **여울**: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❸ **향수(鄕愁)**: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 ❹ **기폭(旗幅)**: 깃대에 달린 천이나 종이로 된 부분. ❺ **논고랑**: 벼 포기를 줄지어 심은 둑과 둑 사이에 골이 진 곳. ❻ **우왕좌왕(右往左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함. ❼ **무심(無心)하다**: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없다.

가 시상의 흐름

1(1~3연)	2(4~5연)	3(6~7연)
달빛이 비친 겨울 호수의 모습과 추억	황혼 무렵의 차창 밖 풍경과 향수	논둑의 풍경

↓

시상 전개 방식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각 장면에서는 겨울 호수와 그 부근의 정경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됨. • 겨울 호수와 그 부근의 정경이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환기됨.

나 논고랑에 고인 물을 보는 행위의 역할

물을 보기 전		물을 본 후
늘 홀로였음.	→	다른 존재들과 함께 있음.
늘 떨며 우왕좌왕했음.		무심하고 아주 선명함.

↓

물을 보는 행위	화자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

작품 이해의 길라잡이

가 겨울 호수의 풍경을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회화적으로 그린 모더니즘 시이다. 1에서는 '양철'과 '얼음'이 환기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의 호수 풍경이 '한포기 화려한 꽃밭'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화려하게 빛나는 이미지와 결합되었다가 다시 '조각난 빙설'과 연결되면서 스산한 분위기로 드러난다. 2에서는 길게 얼어붙은 강물과 황혼녘의 모습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고, 3에서는 '잉상한 잡목림'과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을 통해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강조된다.

나 화자가 '논고랑에 고인 물'을 보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존재들의 관계와 의미를 성찰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작품이다. 화자는 물속에 비친 '거꾸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프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늘 홀로'였고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자신의 모습이 물속에서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있고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01~09] 두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01 (가)는 시각적, 청각적, 공감각적 심상과 같은 여러 가지 심상을 활용하여 겨울 호수 부근의 풍경을 그려 내고 있는 회화적, 모더니즘적 성격의 시이다.

02 (가)는 공간의 이동에 의해 시상을 전개하면서 시적 상황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가)는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겨울 호수의 고독한 풍경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04 (가)에서는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05 (가)에서는 줄표를 사용하여 아득함, 소멸감, 공간적 거리감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06 (나)는 '고인 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시적 상황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07 (나)는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물을 보고 있는 화자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자의 인식 변화 등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08 (나)는 시행을 비교적 짧은 길이로 구성하여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있다.

09 (나)는 청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10~17] 두 작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0 (가)의 1에서 화자는 햇살이 찬란한 날에 겨울 호숫가를 거닐고 있다.

11 (가)의 화자는 호수의 부서지는 얼음 소리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을 받고 있다.

12 (가)의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고독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13 (나)의 화자는 논고랑에 고인 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14 (나)의 화자는 늘 홀로라고 느끼면서 삶을 살아왔다.

15 (나)의 화자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16 (나)의 화자는 물속에 비친 존재들이 누가 높거나 낮지 않고 모두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다.

17 (나)의 화자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무심하고 선명하다고 생각한다.

[18~20] 다음 표현법이 사용된 구절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보기
ㄱ. 부숴지는 얼음 소리가 /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ㄴ. 노을은 / 나 어린 향수(鄕愁)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ㄷ. 호수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

18 직유법: _____ 19 은유법: _____
20 활유법: _____

작품 속 개념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쓰시오.

여울	향수(鄕愁)	무심하다

1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2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없다.:
3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

4 〈보기〉와 같이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숴지는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①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②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 정한모, '가을에'
③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 김종길, '성탄제'
④ 구렁에 물소리가 / 몸에 감겨 스며드는 – 이태극, '삼월은'
⑤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정지용, '향수'

5 (나)의 어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독백적
② 관조적
③ 단정적
④ 격정적
⑤ 성찰적

정답 1 여울 2 무심하다 3 향수 4 ③ 5 ④

2021 3월 학평 31번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시선을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 작품의 공통점 파악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및 그 효과가 지닌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각 선택지에 제시된 개념을 확인하고 두 시에서 각각 해당 표현을 찾을 수 있는지, 그 표현의 효과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 선택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021 3월 학평 32번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숫자로 구별된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면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겨울 호수와 그 부근의 풍경이 형상화되고, 이 과정에서 애상적 정서가 환기된다.

① '1'에서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으로 표현된 호수의 모습에 '양철'과 '얼음'이 환기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이 연결되면서 겨울 호수의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있다.
② '1'에서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겨울 호숫가를 '홀로' 거니는 화자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2'의 '강물'과 '노을'은 '낡은 고향'과 '향수'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④ '2'의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3'의 '논둑 위에 서 있다'와 연결되면서,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이 드러내는 정서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⑤ '1', '2', '3'에서는 각각 '조각난 빙설', '얼어붙'은 '강물', '앙상한 잡목림'과 같은 시구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작품 해석의 준거가 되는 〈보기〉를 바탕으로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보기〉는 (가)에 제시된 장면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대상과 환기하고 있는 정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선택지에 언급된 시구를 찾아 전후 맥락을 확인하고, 형상화하고 있는 풍경과 환기되는 화자의 정서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본다.

2021 3월 학평 33번

3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과 '곁에 거꾸로 누워 있'는 '산'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군.
②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 것에서 화자가 물에 비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아프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에게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④ '늘 홀로'라고 생각했던 화자는 '나뭇가지', '햇살', '새 그림자'와 '나의 얼굴'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군.
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물을 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3 시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이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언급된 각 시구가 제시된 맥락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하여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기출 1 문제 변형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② (가)는 줄표를 사용하여 아득함, 소멸감, 공간적 거리감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나)는 시행을 긴 호흡으로 구성하여 유장한• 느낌을 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상황에 따른 화자의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화자의 인식과 정서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 유장(悠長)하다: ① 길고 오래다. ② 급하지 않고 느릿하다.

0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가 보고 있는 호수는 겨울의 모습이라서 '양철'이나 '얼음'과 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군.
② 밤에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 화자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의 모습을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나 '한포기 화려한 꽃밭'으로 표현하고 있군.
③ 화자는 추억이 '여윈' 모습이라고 구체화하고 '조각난 빙설'과 같이 지난 추억이 파편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스산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군.
④ 화자는 '길—게 얼어붙'은 강물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풍요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군.
⑤ 화자가 '노을'이 '나 어린 향수(鄕愁)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알 수 있군.

02-1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유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보기
- '날카로운 호적같이'
-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 '낡은 고향의 허리띠같이'
- '나 어린 향수(鄕愁)처럼'

기출 3 문제 변형

03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논고랑에 고인 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② 늘 홀로라고 느끼면서 삶을 살아왔다.
③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④ 열심히 살아온 자신이 그 어떤 존재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⑤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며 살아왔으나 주변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을 벗어나 선명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04-1 〈보기〉에서 (가)의 '송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보기
방(房) 안에 혓는 촉(燭)불 눌과 이별(離別)ᄒᆞ엿관ᄃᆡ
것츠로 눈물 디오 속 타는 쥴 모로는고
뎌 촉(燭)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쥴 모로도다 — 이개

04 서답형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적 대상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가)의 화자는 겨울 호수 부근의 풍경을 바라보며 향수(鄕愁)와 애상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화자의 감정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인화된 특정 자연물에 이입됨으로써 깊은 여운을 남긴다.

정답 02-1 직유법 04-1 촉(燭)불

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 완벽 정리!

☆ '성호부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회화적, 모더니즘적
제재	겨울 호수 부근의 풍경	어조	애상적, 독백적
주제	겨울 호수 부근의 풍경과 추억		

☆ '성호부근' 특징 정리

- 여러 가지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회화적, 모더니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각적 심상	양철, 은모래, 꽃밭, 빙설, 빛, 허리띠, 노을, 잡목림, 하늘, 송아지
청각적 심상	부서지는 얼음 소리, 호적 소리
공감각적 심상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청각의 촉각화)

- 공간의 이동에 의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겨울 호수의 고독한 풍경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 비유법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직유법	• '날카로운 호적같이'(원관념: 얼음 소리) •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원관념: 호수) • '낡은 고향의 허리띠같이'(원관념: 길게 얼어붙은 강물) • '나 어린 향수(鄕愁)처럼'(원관념: 노을)
은유법	• '호수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원관념: 호수) • '조각난 빙설(氷雪)'(원관념: 추억의 조각)
활유법	'노을은 ~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의인법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

- 줄표를 사용하여 아득함, 소멸감, 공간적 거리감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논두렁에 서서'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제재	고인 물	어조	관조적, 독백적
주제	논고랑에 고인 물을 보며 깨닫는 삶의 속성		

☆ '논두렁에 서서' 특징 정리

- '고인 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물을 보고 있는 화자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자의 인식 변화 등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 시행을 간결하게 구성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동일한 어미와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어미 반복	종결 어미 '-다' 반복, 연결 어미 '-고' 반복('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 햇살이 번지고 /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시어 반복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 물을 보는 행위의 전과 후의 화자의 인식을 대조하여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물을 보기 전		물을 본 후
늘 홀로였음.	←→	다른 존재들과 함께 있음.
늘 떨며 우왕좌왕했음.		무심하고 아주 선명함.

↓

물을 보며 깨달은 삶의 속성	• '나'는 자연과 공존함. • 모든 존재는 높지도 낮지도 않고 모두 아름다움. • 떨며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무심하고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음.

모더니즘 시의 특징

전통적인 시들이 운율을 중시했던 것과 달리, 모더니즘 시는 운율보다는 회화성을 중시했다. 또한 전통적인 서정시에서 화자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호소했던 것과는 달리, 모더니즘 시는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모더니즘 시를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지성 또는 이지(理智)를 앞세우는 경향이나 태도를 지녔다는 의미에서 주지주의적이라고 규정짓고, 모더니즘 시를 주지시로 부르기도 한다.

2022 100발 100중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 변형문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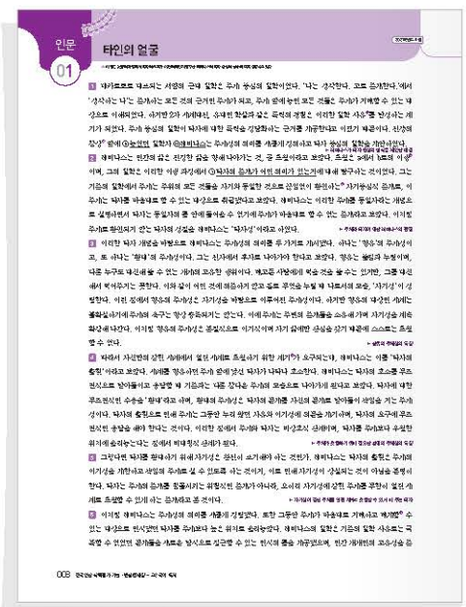
고1 국어 독서

3개년 학평 기출문제 및 변형문제 수록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최근 3개년(2019~2021학년도) 고1 학력평가에 출제된 독서영역의 지문 및 기출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패턴화된 확인 문제와 기출 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 학교 시험은 물론 학력평가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문 01 타인의 얼굴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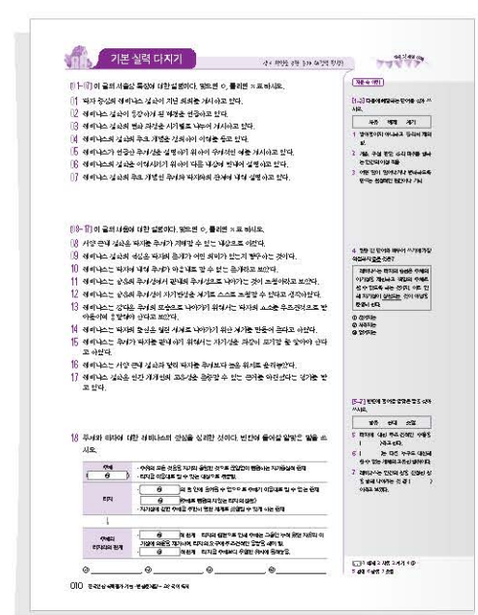
지문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문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시각화하여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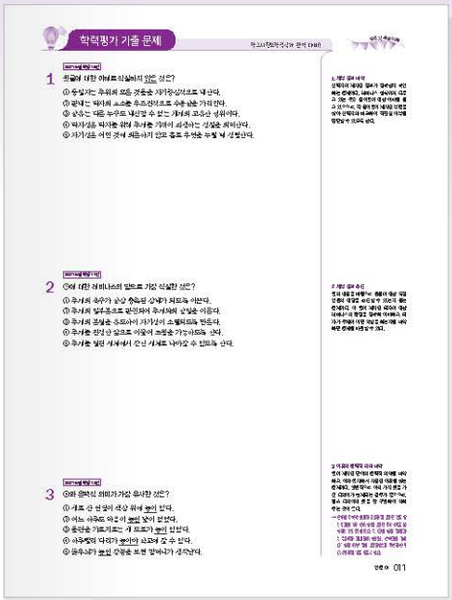
- 지문의 구조나 핵심 내용 등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거나 도식화함으로써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문 이해의 길라잡이'를 통해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를 제시함으로써 지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실력 다지기

패턴화된 문제를 통해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문제: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의 서술 방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문제: 글의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문제: 글의 구조를 도식화하거나 핵심 정보를 표로 정리하여 핵심 부분을 빈칸 채우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문 속 어휘: 보조단에 '지문 속 어휘'라는 코너를 두어 지문에 제시된 주요 어휘를 문제화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휘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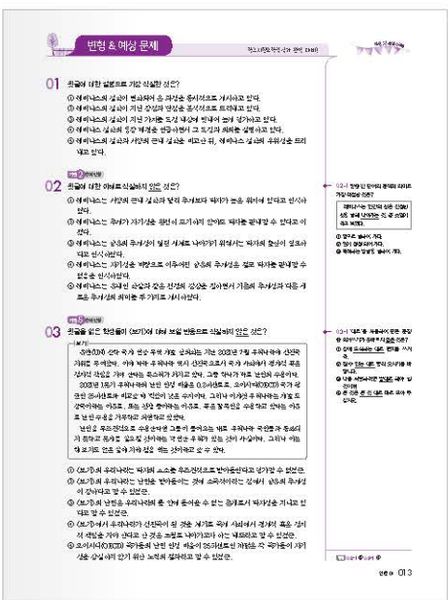

기본 실력 다지기



학력평가 기출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과 풀이 전략을 제시하여 기출문제의 유형 파악과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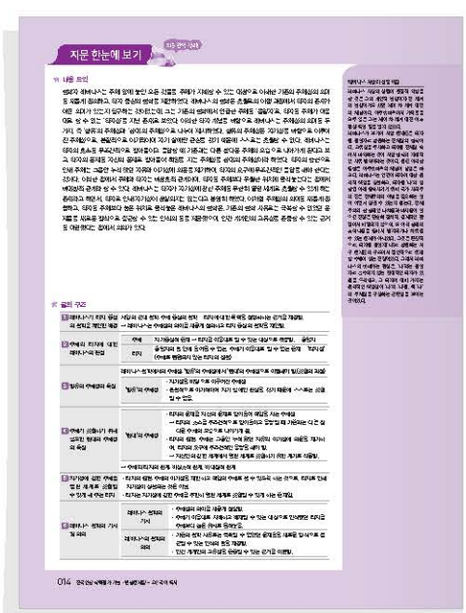
- 출제 유형 및 풀이 전략: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을 짚어 주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풀이 전략을 통해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식+, 참고, 어휘 풀이 등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지문이나 문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심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형 & 예상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변형한 문제와 학교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변형 문제: 핵심 기출 문제의 발문이나 선택지, 〈보기〉 등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예상 문제: 지문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서답형/서술형 문제: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 핵심 내용 등을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서답형/서술형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양한 확인 문제: 보조단에 지문이나 문제 이해에 필요한 확인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지문 한눈에 보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을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요약: 지문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요약하였습니다.
- 글의 구조: 지문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문단별로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배경지식: 보조단에 지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 례

Ⅰ. 인문

				학습일
01	2021년 3월	한국 주자학과 실학에서의 민(民) 개념	008	월 일 □
02	2021년 6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	015	월 일 □
03	2021년 9월	미치게 친절한 철학	021	월 일 □
04	2020년 6월	논리와 사고	028	월 일 □
05	2020년 9월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	035	월 일 □
06	2020년 11월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042	월 일 □
07	2019년 6월	철학 vs 철학	049	월 일 □
08	2019년 11월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056	월 일 □

Ⅱ. 사회

				학습일
01	2021년 3월	행정법총론	064	월 일 □
02	2021년 6월	수요의 가격탄력성	071	월 일 □
03	2021년 9월	민법정론	077	월 일 □
04	2021년 11월	보험법	084	월 일 □
05	2020년 3월	국제 무역론	091	월 일 □
06	2020년 6월	경영학 콘서트	098	월 일 □
07	2020년 9월	경제학원론	105	월 일 □
08	2020년 11월	경제 추격론의 재창조	112	월 일 □
09	2019년 6월	제조물 책임법	120	월 일 □
10	2019년 9월	플랫폼의 미래 서브스크립션	127	월 일 □
11	2019년 11월	조직경제학 입문	132	월 일 □

Ⅲ. 과학/기술

				학습일
01	2021년 3월	일반물리학	140	월 일 □
02	2021년 6월	식욕의 작용 원리	147	월 일 □
03	2021년 9월	수소전기차	154	월 일 □
04	2021년 11월	핵의학 기술	161	월 일 □
05	2020년 6월	지구의 이해	168	월 일 □
06	2020년 9월	최신 컴퓨터 구조	175	월 일 □
07	2020년 11월	알기 쉬운 열전달	182	월 일 □
08	2019년 3월	교양인을 위한 물리 지식	188	월 일 □
09	2019년 6월	살아 있는 과학 교과서	195	월 일 □
10	2019년 9월	일상 속의 물리학	202	월 일 □
11	2019년 9월	미래를 읽다 과학이슈	208	월 일 □
12	2019년 11월	지역난방 기초공학 및 에너지기술 실무교육	214	월 일 □

Ⅳ. 예술

				학습일
01	2021년 9월	국악개론	222	월 일 □
02	2020년 3월	미래주의 회화 운동	228	월 일 □
03	2019년 3월	엑스레이 아트	234	월 일 □

Ⅴ. 융합

				학습일
01	2021년 11월	정념 / 도덕형이상학 정초	242	월 일 □
02	2020년 3월	언어와 뇌	249	월 일 □
03	2019년 3월	심리학, 경제를 말하다	256	월 일 □
04	2019년 9월	니체의 예술 철학과 표현주의	263	월 일 □

I

인문

인문 지문은 독서 영역의 대표적인 제재로 역사, 철학,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이 소재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철학 분야의 지문이 수능이나 학력평가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철학 관련 지문에서는 주로 한 철학자의 견해나 사상이 드러나는 글, 둘 이상의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하는 글 등이 출제되는데, 자주 출제되는 철학자로는 동양의 공자, 맹자 등과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비트겐슈타인 등이 있다.

01 2021학년도 3월 한국 주자학과 실학에서의 민(民) 개념

02 2021학년도 6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

03 2021학년도 9월 미치게 친절한 철학

04 2020학년도 6월 논리와 사고

05 2020학년도 9월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

06 2020학년도 11월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07 2019학년도 6월 철학 vs 철학

08 2019학년도 11월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인문 01

2021학년도 3월

한국 주자학과 실학에서의 민(民) 개념

* 이 글은 조선 시대의 통치 기조인 민본 사상과 관련하여, 시기별 주요 학자들의 관점과 주장을 비교·설명하고 있다.

1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民本) 사상을 통치 기조[1]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2]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 조선 시대의 통치 기조로 주장된 민본 사상

2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3]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4]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5] 것이라 할 수 있다.

▶ 조선 초기 정도전의 관점과 주장

3 조선 중기의 학자 이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 논했다. 이이는 특히 애민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6]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畏民)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했다.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조선 중기 이이의 관점과 주장

4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는 조선 후기 농업 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 조선 후기 정약용의 관점과 주장

5 조선 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 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 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7] 소원 제도 등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A]

▶ 민본 사상과 관련된 논의가 조선의 통치 기조에 끼친 영향

어휘 풀이 ❶ **기조(基調)**: 사상, 작품, 학설 따위에 일관해서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 ❷ **교화(敎化)하다**: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다. ❸ **녹봉(祿俸)**: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❹ **위계(位階)**: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❺ **입각(立脚)하다**: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서다. ❻ **신망(信望)**: 믿고 기대함. 또는 그런 믿음과 덕망. ❼ **수렴(收斂)하다**: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

민본 사상에서의 군주와 백성의 역할

군주	• 백성의 뜻을 받들며 섬김. • 백성의 모범이 됨. • 백성의 삶을 안정시킴. ┐ • 백성을 교화해야 함. ┘→ 애민의 태도와 연관됨.
백성	• 군주에 의해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음. • 군주의 통치에 순응해야 함.

유학자들이 본 군주와 백성의 관계

정도전	• 군주나 관료는 백성의 봉사자임. •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함. → 관료의 자질 향상 및 감사 기능 강화를 주장함. – 군주가 덕성을 갖춤. • 애민의 내용 –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함.
이이	•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유사함. • 애민의 실현 방법 – 군주가 백성을 교화해야 함. – 교화의 전제 조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함. •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외민의 태도로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정도전의 애민관과의 차이점
정약용	• 애민의 내용 – 사회적 약자인 소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 백성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함. – 백성은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며,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배경: 조선 후기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함.

↓

교육 제도, 감찰 제도, 조세 및 복지 제도, 소원 제도 등 백성을 위한 정책 실현의 바탕이 됨.

지문 이해의 길라잡이

이 글은 조선 시대의 통치 기조인 민본 사상과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설명하고 있다. 민본 사상이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다는 사상인데,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은 이러한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본 사상에 따르면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과 같이 받들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며,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반면 백성은 군주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조선 초기의 유학자 정도전은 군주의 역할을 백성을 위한 봉사자로 규정하는 한편, 왕권이 작동되기 위한 관료 조직의 정비와 군주의 덕성을 강조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이는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규정하고, 애민을 위해서는 백성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지닐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외민의 태도를 주장함으로써 정도전의 백성관과의 차이를 보인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정약용은 애민의 내용을 구체화해 사회적 약자에 속한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은 가난한 백성은 교화를 따르고, 부유한 백성은 세금을 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백성관을 보여 줌으로써 정도전과 이이의 백성관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정약용이 백성의 역할을 강조한 까닭은 조선 후기 농업 기술 및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한 백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학자들의 백성관과 애민관은 통치 계층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는 바탕이 되었다.

[01~06]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01 핵심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02 민본 사상과 관련된 주장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민본 사상에 대한 서로 다른 세 학자의 관점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4 세 학자의 관점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 · 분석하고 있다.

05 세 학자의 관점을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6 화제의 역사적 영향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7~21]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07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은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08 민본 사상에서는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다고 본다.

09 민본 사상에 따르면, 백성은 군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겨야 한다.

10 민본 사상에 따르면, 군주는 보살핌과 가르침을 주는 존재이고, 백성은 그것을 받는 존재이다.

11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이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 정도전은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료 조직이 혁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3 이이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 빗대어 논하였다.

14 이이는 백성의 교화를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15 이이가 외민의 태도를 강조한 이유는 백성이 지닌 단결력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16 정도전과 이이는 모두 군주의 덕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7 정도전과 달리 이이는 군주가 백성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18 정약용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19 정도전이나 이이와 달리 정약용은 통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백성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조선 후기의 사회 · 경제적 상황은 백성의 역할에 대한 정약용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21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 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 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 제도 등은 민본 사상이 정책적으로 구현된 사례이다.

22 민본 사상을 주장했던 세 학자의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정도전	(㉠)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고, (㉠)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함.
이이	(㉡)는 외민(畏民)의 태도를 지녀야 함.
정약용	(㉢)은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로서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_____, ㉡: _____, ㉢: _____

지문 속 어휘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쓰시오.

기조	정점	근간

1 맨 꼭대기가 되는 곳.

2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

3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4~7]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상통	수렴	교화	주도

4 유학자들은, 군주란 백성을 ( )해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5 정도전은 조선 개국을 ( )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유학자이다.

6 백성을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이이의 주장은 정도전의 관점과 ( )한다.

7 백성을 위한 교육 제도, 관료를 견제하는 감찰 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 제도, 백성의 민원을 ( )하는 소원 제도 등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이다.

[8~11]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8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다.
① 거짓으로 꾸민 계책.
②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9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
① 고맙게 여김.
② 감독하고 검사함.

10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하다.
①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②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을 펼치거나 말을 함.

11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 제도
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②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官)에 하소연함.

정답 1 정점 2 기조 3 근간 4 교화 5 주도 6 상통 7 수렴 8 ② 9 ② 10 ① 11 ②

2021 3월 학평 16번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선 시대 관료 조직의 위계를 분석하고 있다.
② 조선 시대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③ 조선 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④ 조선 시대 군주들의 통치관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조선 시대 상업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진술된 것이, '단순히 언급만 된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인지 구분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이라면 그 '전개 방식'에 대한 진술이 적절한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2021 3월 학평 17번

2 외민(畏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백성이 군주에 대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다.
②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③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는 근거이다.
④ 민생이 안정되었을 때 드러나는 백성의 이상적 모습이다.
⑤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2 세부 정보 파악
특정 개념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개념이 제시된 문장, 혹은 문단만으로도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된다. 이 문제의 경우, 해당 문장이 근거('백성은 ~ 이므로')와 주장('군주는 ~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진술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2021 3월 학평 18번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에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에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 정도전, 『삼봉집』

ㄴ. 청컨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삼분의 일 줄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공물들도 삼분의 일 줄이십시오.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치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이, 『율곡전서』

ㄷ.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 오르는데 수백 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전 중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① ㄱ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② ㄴ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③ ㄷ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④ ㄱ과 ㄷ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를 보여준다.
⑤ ㄴ과 ㄷ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안된 방안에 해당한다.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글의 내용을 〈보기〉의 사례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문제이다. 정도전의 말인 ㄱ은 2와, 이이의 말인 ㄴ은 3과, 정약용의 말인 ㄷ은 4와 주로 관련되지만, 세 인물의 관점 모두 민본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각각의 요지를 먼저 파악한 후, 2, 3, 4에서 관련 혹은 공통된 내용을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참고
- 『삼봉집(三峯集)』: 정도전의 시가와 산문, 철학, 제도 개혁안 등을 종합적으로 엮어 간행한 문집(삼봉은 정도전의 호)
- 『율곡전서(栗谷全書)』: 이이의 시문집(율곡은 이이의 호)
- 『목민심서(牧民心書)』: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고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2021 3월 학평 19번

4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후 활동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

[자료]

조선 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결론]

[자료]와 [A]는 조선 시대의 (　㉮　)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백성이 교육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는지
②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
③ 교육 방식이 현대적으로 계승되었는지
④ 신분 질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⑤ 백성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했는지

4 관점의 비교

둘 이상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를 파악 · 비교하는 문제이다. [자료]와 [A]가 각각 '무엇'에 대한 '어떤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파악한 후 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자료]는 '조선 시대의 교육'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관점을, [A]는 '교육을 비롯한 조선 시대의 제도'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1 3월 학평 20번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따라야
② ⓑ: 가다듬는
③ ⓒ: 끊임없이
④ ⓓ: 걸맞은
⑤ ⓔ: 바탕을 둔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문맥을 토대로 해당 단어의 의미를 판단한 후, 선택지에 제시된 말이 그 의미를 적절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01 윗글을 읽고 '조선 시대의 민본 사상'에 대해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성은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②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③ 관료는 백성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지녔다고 보았다.
④ 군주는 윤리적 측면에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군주는 백성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01-1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았다.

① 간주하였다
② 관람하였다

01-2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보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기
> 군주는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① 손해를 보면서 팔 생각은 없다.
②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았다.
③ 손님 주무실 자리를 봐 드려라.

기출 3 문제 변형

0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임금은 아버지요
>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 한다면 나라가 보전함을 알 것입니다.
>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 충담사, 「안민가」

① 이이는 ㉠이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상통한다고 보겠군.
② 정도전은 ㉡이 관료 조직의 위계적 정비를 강조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겠군.
③ 세 학자는 모두 ㉢이 백성이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점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하겠군.
④ 이이는 ㉣이 군주가 백성의 신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고 판단하겠군.
⑤ 정약용은 ㉤이 백성 각자의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강조한 자신의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하겠군.

지식+ 충담사, 「안민가」

10구체의 향가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1~4구에서는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임금과 신하가 부모처럼 짝이 되어 백성을 보살펴야 함을 제시하고 있고, 5~8구에서는 통치의 근본 원리로 민본주의를, 9~10구에서는 국태민안의 방책으로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을 지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임금과 신하가 부모처럼 자애로운 마음으로 백성의 생활을 보살피고, 임금과 신하, 백성이 각기 본분을 다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03 서답형 윗글에서 설명한 세 학자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군주와 백성에 대한 정도전, 이이, 정약용의 관점은 모두 민본 사상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　　)은/는 군주가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 (　　)은/는 백성이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정답 01-1 ① 01-2 ②

지문 한눈에 보기

지문 완벽 정리!

☆ 내용 요약

이 글은 조선 시대의 통치 기조인 민본 사상과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 · 설명하고 있다. 민본 사상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군주는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에게 보살핌과 가르침을 주는 존재이어야 하고,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 초기, 중기, 후기를 각각 대표하는 세 학자 정도전, 이이, 정약용의 주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라고 보았으며, 백성을 보살피는 군주의 덕성과 관료의 자질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이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고 백성의 교화와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하였다. 정약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보살핌과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해 백성들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민본 사상에 입각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정약용의 민본 사상

유학자들 대부분의 정치 이론이 백성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에 반해, 정약용은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파악하고 백성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태초에 백성뿐이었으나 백성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통치자를 세운 것이라며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따라서 처음 통치자를 세울 때는 정치가 아래에서 위로 향했는데, 정약용 시대의 정치 현실은 그 반대라며 당시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정치가 퇴폐해지면 백성이 곤궁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져 결국 가혹한 세금으로 민심과 천명까지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의 가장 우선순위로서 민본론을 제시하였다.

☆ 글의 구조

1 조선 시대의 통치 기조로 주장된 민본 사상	• 민본 사상: 왕권의 기반은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함. '군주'의 역할: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애민의 태도로 백성을 보살피고 가르쳐야 함. '백성'의 역할: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함.
2 조선 초기 정도전의 관점과 주장	• 군주나 관료: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 •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이 위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함. 군주가 덕성을 갖추어야 함. •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함. • 애민의 내용 –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함.
3 조선 중기 이이의 관점과 주장	• 군주와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군주: • 바람직한 덕성을 지녀야 함. – 정도전과의 공통점 ① •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畏民)의 태도를 지녀야 함. – 정도전과의 차이점 백성: • 군주에 대한 신망은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음. • 군주에 의한 교화의 대상임. – 정도전과의 공통점 ② • 애민의 실현 방법 – 군주가 백성을 교화해야 함. • 백성 교화의 전제 조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함.
4 조선 후기 정약용의 관점과 주장	• 애민의 구체적 내용: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소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 백성은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로서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소민 – 교화를 따름. / 대민 – 생산 수단 제공, 납세 부담)
5 민본 사상과 관련된 논의가 조선의 통치 기조에 끼친 영향	민본 사상에 입각한 학자들의 주장 → •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됨. • 백성을 위한 여러 정책(교육 제도, 감찰 제도, 조세 및 복지 제도, 소원 제도 등)으로 구현됨.

☆ 민본(民本)

'민본'이라는 말은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서경』의 구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유교 경전 속에 나타난 민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본	백성을 모든 정치 행위의 주체로 본다. 민심을 천심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정치적 객체로서의 민본	백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본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 왕을 세워 그로 하여금 통치를 대행하도록 했다는 데서 드러난다.
국가 구성 요소로서의 민본	백성 없이는 국가가 없고 정치적 목적 또한 실현되지 않는다고 본 데서 드러난다.

2022 100발100중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 변형문제집

고2 국어 문학

3개년 학평 기출문제 및 변형문제 수록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최근 3개년(2019~2021학년도)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학영역의 작품 및 기출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패턴화된 확인 문제와 기출 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 학교 시험은 물론 학력평가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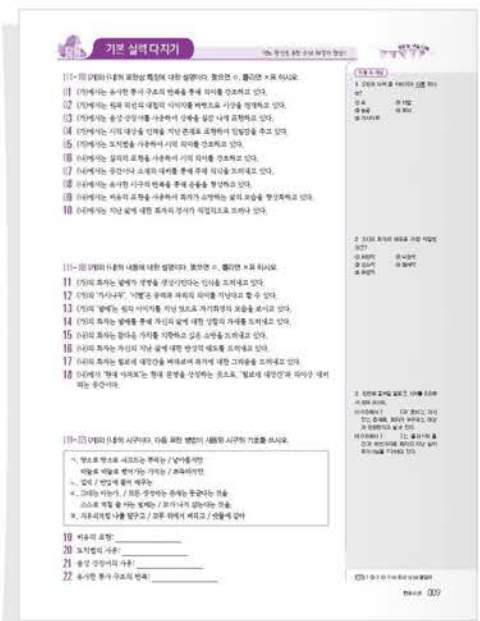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첨삭 해설과 중심 내용 제시로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시각화하여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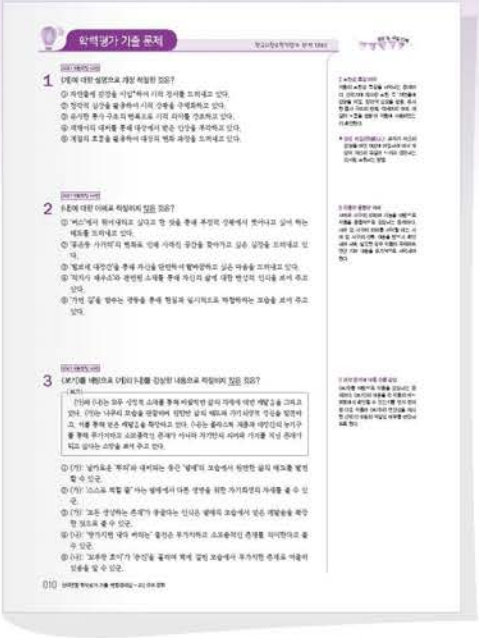
- 작품의 구조나 핵심 내용 등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거나 도식화함으로써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작품 이해의 길라잡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를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실력 다지기

패턴화된 문제를 통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문제: 작품의 표현상 ·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서술 방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문제: 작품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속 개념: 보조단에 '작품 속 개념'이라는 코너를 두어 작품에 제시된 주요 어휘와 작품의 특징이나 성격 등을 문제화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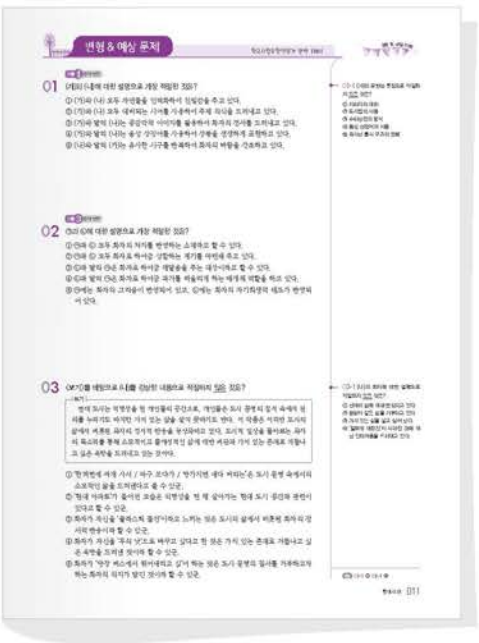




학력평가 기출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과 풀이 전략을 제시하여 기출 문제의 유형 파악과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출제 유형 및 풀이 전략: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을 짚어 주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풀이 전략을 통해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식+', '참고', '어휘 풀이' 등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작품이나 문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심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형 & 예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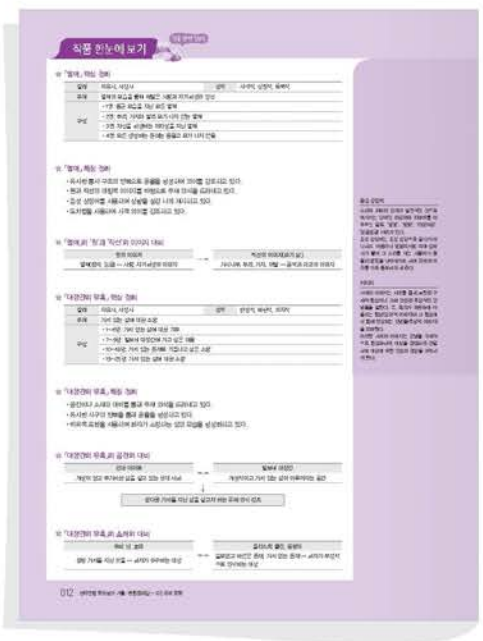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변형한 문제와 학교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변형 문제: 핵심 기출 문제의 발문이나 선택지, 〈보기〉 등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예상 문제: 작품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서답형/서술형 문제: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 핵심 내용 등을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서답형/서술형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양한 확인 문제: 보조단에 작품이나 문제 이해에 필요한 확인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의 핵심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을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작품의 특징이나 구조 등 작품 이해를 돕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배경지식: 보조단에 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 례

Ⅰ. 현대시

				학습일
01	2021학년도 6월	열매 / 대장간의 유혹	008	월 일 □
02	2021학년도 9월	다시 봄이 왔다 / 벽	013	월 일 □
03	2021학년도 11월	항구/희망의 거처	018	월 일 □
04	2020학년도 3월	달을 보며 / 이사, 악양	023	월 일 □
05	2020학년도 6월	수유나무에 대하여 / 멸치	028	월 일 □
06	2020학년도 9월	바람의 집 – 겨울 판화 1 / 씨앗을 받으며	033	월 일 □
07	2020학년도 11월	절정 / 생명	039	월 일 □
08	2019학년도 3월	하늘만 곱구나 /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044	월 일 □
09	2019학년도 6월	산길에서 / 길	050	월 일 □
10	2019학년도 11월	흰 그림자 / 연어의 나이테	056	월 일 □

Ⅱ. 고전 시가

				학습일
01	2020학년도 9월	저곡전가팔곡 / 용추유영가	064	월 일 □
02	2020학년도 11월	속미인곡 / 목동문답가	070	월 일 □
03	2019학년도 6월	고시 / 시집살이 노래	077	월 일 □

Ⅲ. 시 복합

				학습일
01	2021학년도 3월	흰 바람벽이 있어 / 탄궁가	084	월 일 □
02	2021학년도 6월	율리유곡 / 육우당기	091	월 일 □
03	2021학년도 9월	도산십이곡 / 뒤지가 진적	097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매호별곡 / 양저설	104	월 일 □
05	2020학년도 3월	독락당 / 방우산장기	111	월 일 □
06	2020학년도 6월	풍계육가 / 포화옥기	118	월 일 □
07	2019학년도 3월	상사별곡 / 다도해기 5 – 일편낙토	125	월 일 □
08	2019학년도 9월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푸른 밤 / 속미인곡	131	월 일 □
09	2019학년도 11월	용사음 / 원목	138	월 일 □

Ⅳ. 현대 소설

				학습일
01	2021학년도 3월	티타임을 위하여	148	월 일 □
02	2021학년도 6월	저건 사람도 아니다	154	월 일 □
03	2021학년도 9월	모순	160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아득한 나날	166	월 일 □
05	2020학년도 3월	촌뜨기	173	월 일 □
06	2020학년도 6월	당신들의 천국	180	월 일 □
07	2020학년도 9월	카메라와 워커	186	월 일 □
08	2020학년도 11월	철쭉제	192	월 일 □
09	2019학년도 3월	손풍금	199	월 일 □
10	2019학년도 9월	노을	206	월 일 □
11	2019학년도 11월	청산댁	212	월 일 □

Ⅴ. 고전 소설

				학습일
01	2021학년도 3월	월왕전	220	월 일 □
02	2021학년도 6월	옥단춘전	226	월 일 □
03	2021학년도 9월	구운몽	232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유씨전	239	월 일 □
05	2020학년도 3월	소대성전	245	월 일 □
06	2020학년도 6월	이대봉전	251	월 일 □
07	2020학년도 9월	이학사전	257	월 일 □
08	2020학년도 11월	옥소선	263	월 일 □
09	2019학년도 3월	민옹전	270	월 일 □
10	2019학년도 6월	백학선전	276	월 일 □
11	2019학년도 9월	두껍전	282	월 일 □
12	2019학년도 11월	권익중전	288	월 일 □

Ⅵ. 소설 복합, 극

				학습일
01	2021학년도 3월	전하	296	월 일 □
02	2019학년도 6월	날개 또는 수갑 / 불꽃	302	월 일 □
03	2019학년도 9월	집으로	310	월 일 □

I

현대시

현대시는 문학 영역의 대표적인 제재로,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쓰인 시들을 말한다. 고전 시가에 비해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 많아 어떤 작품이 출제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시 문학사에서 시기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주요 작가의 대표 작품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요 작가의 작품 경향 등을 잘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01 2021학년도 6월 열매 / 대장간의 유혹

02 2021학년도 9월 다시 봄이 왔다 / 벽

03 2021학년도 11월 항구 / 희망의 거처

04 2020학년도 3월 달을 보며 / 이사, 악양

05 2020학년도 6월 수유나무에 대하여 / 멸치

06 2020학년도 9월 바람의 집 – 겨울 판화 1 / 씨앗을 받으며

07 2020학년도 11월 절정 / 생명

08 2019학년도 3월 하늘만 곱구나 /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09 2019학년도 6월 산길에서 / 길

10 2019학년도 11월 흰 그림자 / 연어의 나이테

현대시 01

2021학년도 6월

열매 _ 오세영 / 대장간의 유혹 _ 김광규

* (가)는 원의 이미지를 지닌 열매를 통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발견하고,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나)는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상실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공간인 '대장간'을 통해 참된 삶의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가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 1연: 둥근 모습을 지닌 모든 열매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 2연: 뿌리, 가지와 달리 모가 나지 않는 열매

덥썩 / 한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 3연: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성을 지닌 열매

그대는 아는가, /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4연: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고 모가 나지 않음.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 1~6행: 가치 없는 삶에 대한 거부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 7~9행: 털보네 대장간에 가고 싶은 마음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 10~18행: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소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19~25행: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작품 이해의 길라잡이

가 이 작품은 원의 이미지를 지닌 열매를 통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발견하고,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 이 작품은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상실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공간인 '대장간'을 통해 참된 삶의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마구 쓰다 버려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대장간에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무쇠 낫'과 '호미'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다는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01~10]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01 (가)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가)에서는 원과 직선의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04 (가)에서는 시적 대상을 인격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여 친밀감을 주고 있다.
05 (가)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6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7 (나)에서는 공간이나 소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8 (나)에서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나)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10 (나)에서는 지난 삶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11~18] (가)와 (나)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1 (가)의 화자는 열매가 생명을 생성시킨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가)의 '가시나무', '이빨'은 공격과 파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3 (가)의 '열매'는 원의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 (가)의 화자는 열매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15 (나)의 화자는 참다운 가치를 지향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6 (나)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7 (나)의 화자는 털보네 대장간을 바라보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18 (나)에서 '현대 아파트'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곳으로, '털보네 대장간'과 의미상 대비되는 공간이다.

[19~22] (가)와 (나)의 시구이다. 다음 표현 방법이 사용된 시구의 기호를 쓰시오.

ㄱ.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 뾰족하지만
ㄴ. 덥썩 / 한입에 물어 깨무는
ㄷ. 그대는 아는가, /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ㄹ.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 모루 위에서 벼리고 / 숫돌에 갈아

19 비유적 표현: _____
20 도치법의 사용: _____
21 음성 상징어의 사용: _____
22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_____

작품 속 개념

1 (가)의 시어 중 이미지가 다른 하나는?
① 모　② 이빨
③ 능금　④ 뿌리
⑤ 가시나무

2 (나)의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판적　② 낙관적
③ 냉소적　④ 염세적
⑤ 희생적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를 (나)에서 찾아 쓰시오.
(1) (나)에서 '(　　)'과 '호미'는 가치 있는 존재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 (나)에서 '(　　)'는 '플라스틱 물건'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지난 삶이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1 ③ 2 ① 3 (1) 무쇠 낫 (2) 똥덩이

2021 6월 학평 43번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⑤ 계절의 흐름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1 표현상 특징 파악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즉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 청각적 심상을 활용,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색채어의 대비, 계절의 흐름을 활용'이 작품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감정 이입(感情移入):**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자신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2021 6월 학평 44번

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털보네 대장간'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여 탈바꿈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직지사 해우소'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 현실과 일시적으로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기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는 문제이다.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시어 및 시구의 전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품의 주제와도 연관 지어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021 6월 학평 45번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모두 상징적 소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그리고 있다. (가)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며 원만한 삶의 태도와 자기희생적 정신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다. (나)는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의 농기구를 통해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 주고 있다.

① (가): 날카로운 '뿌리'와 대비되는 둥근 '열매'의 모습에서 원만한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군.
② (가):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에서 다른 생명을 위한 자기희생의 자세를 볼 수 있군.
③ (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는 인식은 열매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나):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물건은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⑤ (나): '꼬부랑 호미'가 '송진'을 흘리며 벽에 걸린 모습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군.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내용을 각 작품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본 다음 작품과 〈보기〉의 연관성을 제시한 선택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기출 1 문제 변형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인격화하여 친밀감을 주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달리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01-1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미지의 대비
② 도치법의 사용
③ 수미상관의 방식
④ 음성 상징어의 사용
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기출 3 문제 변형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화자의 처지를 반영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② ㉠과 ㉡ 모두 화자로 하여금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③ ㉡과 달리 ㉠은 화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과 달리 ㉠은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에는 화자의 그리움이 반영되어 있고, ㉡에는 화자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 도시는 익명성을 띤 개인들의 공간으로, 개인들은 도시 문명의 질서 속에서 편의를 누리기도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도시의 삶에서 비롯된 화자의 정서적 반응을 형상화하고 있다. 도시적 일상을 돌아보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삶에 대한 비판과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① '한꺼번에 싸게 사서 / 마구 쓰다가 /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은 도시 문명 속에서의 소모적인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②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은 익명성을 띤 채 살아가는 현대 도시 공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군.
③ 화자가 자신을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느끼는 것은 도시의 삶에서 비롯된 화자의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군.
④ 화자가 자신을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고 한 것은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⑤ 화자가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것은 도시 문명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군.

03-1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② 똥덩이 같은 삶을 거부하고 있다.
③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④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01-1 ③ 03-1 ④

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 완벽 정리!

「열매」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상징적, 독백적
주제	열매의 모습을 통해 깨달은 사랑과 자기희생의 정신		
구성	• 1연: 둥근 모습을 지닌 모든 열매		
	• 2연: 뿌리, 가지와 달리 모가 나지 않는 열매		
	• 3연: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성을 지닌 열매		
	• 4연: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고 모가 나지 않음.		

「열매」 특징 정리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원과 직선의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다.
-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열매」의 '원'과 '직선'의 이미지 대비

원의 이미지	→	직선의 이미지(모가 남.)
열매(탱자, 능금) → 사랑, 자기희생의 이미지		가시나무, 뿌리, 가지, 이빨 → 공격과 파괴의 이미지

「대장간의 유혹」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비판적, 의지적
주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구성	• 1~6행: 가치 없는 삶에 대한 거부		
	• 7~9행: 털보네 대장간에 가고 싶은 마음		
	• 10~18행: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소망		
	• 19~25행: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대장간의 유혹」 특징 정리

- 공간이나 소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장간의 유혹」의 공간의 대비

현대 아파트	↔	털보네 대장간
개성이 없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 사회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

↓

참다운 가치를 지닌 삶을 살고자 하는 주제 의식 강조

「대장간의 유혹」의 소재의 대비

무쇠 낫, 호미	↔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
참된 가치를 지닌 것들 →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 →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음성 상징어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인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우르는 말로, '멍멍', '탕탕', '아장아장', '엉금엉금' 따위가 있다.
음성 상징어는 음성 상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옹이나 멍멍이처럼 이에 접미사가 붙어 그 소리를 내는 사물이나 동물의 명칭을 나타내기도 하여 국어의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

이미지

시어의 이미지는 시어를 통해 표현된 구체적 형상이나 그와 관련된 추상적인 관념들을 말한다. 즉, 독자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형상(감각적 이미지)과 그 형상에서 함께 연상되는 관념들(추상적 이미지)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어의 이미지는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대상에 대한 인상과 영상을 뚜렷하게 한다.

2022 100발 100중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 변형문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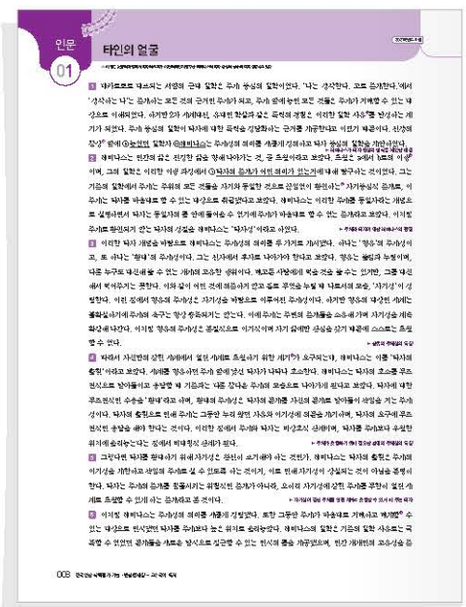
고2 국어 독서

3개년 학평 기출문제 및 변형문제 수록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최근 3개년(2019~2021학년도)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된 독서영역의 지문 및 기출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패턴화된 확인 문제와 기출 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 학교 시험은 물론 학력평가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문 01 타인의 얼굴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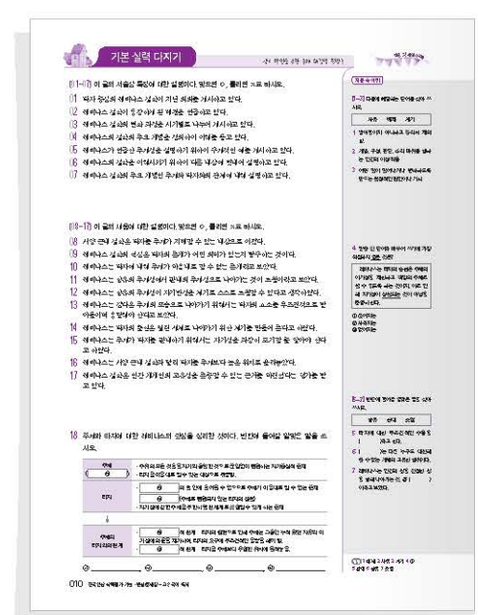
지문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문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시각화하여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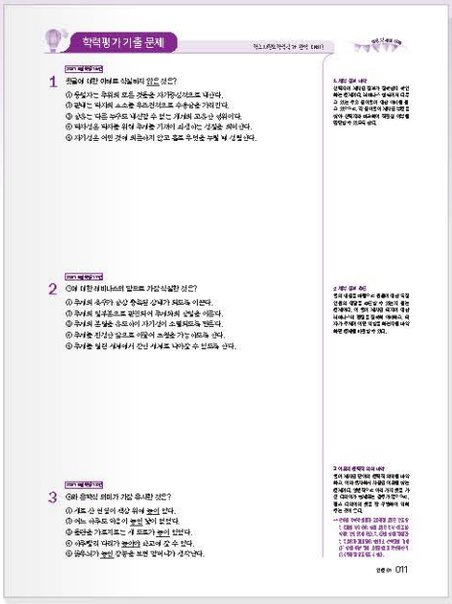
- 지문의 구조나 핵심 내용 등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거나 도식화함으로써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문 이해의 길라잡이'를 통해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를 제시함으로써 지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실력 다지기

패턴화된 문제를 통해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문제: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의 서술 방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문제: 글의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를 ○×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문제: 글의 구조를 도식화하거나 핵심 정보를 표로 정리하여 핵심 부분을 빈칸 채우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문 속 어휘: 보조단에 '지문 속 어휘'라는 코너를 두어 지문에 제시된 주요 어휘를 문제화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휘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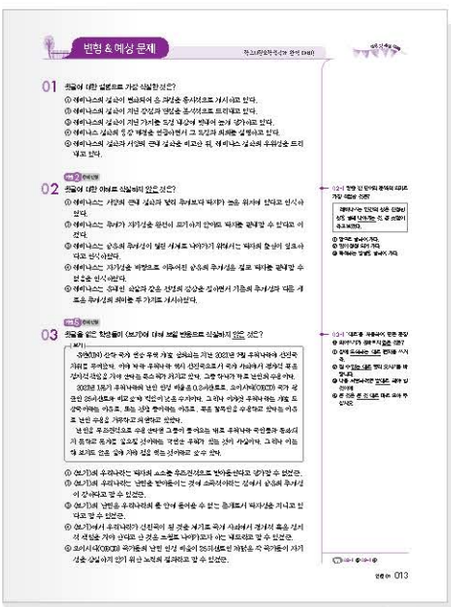

기본 실력 다지기



학력평가 기출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과 풀이 전략을 제시하여 기출 문제의 유형 파악과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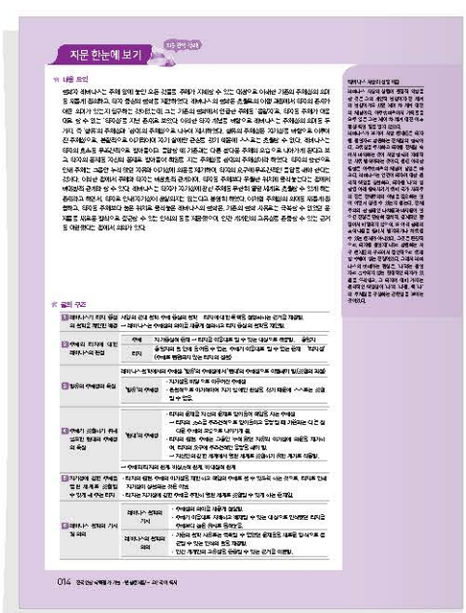
- 출제 유형 및 풀이 전략: 기출 문제의 출제 유형을 짚어 주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풀이 전략을 통해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식+', '참고', '어휘 풀이' 등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지문이나 문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심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형 & 예상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변형한 문제와 학교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변형 문제: 핵심 기출 문제의 발문이나 선택지, 〈보기〉 등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예상 문제: 지문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 서답형/서술형 문제: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 핵심 내용 등을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서답형/서술형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양한 확인 문제: 보조단에 지문이나 문제 이해에 필요한 확인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지문 한눈에 보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을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요약: 지문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요약하였습니다.
- 글의 구조: 지문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문단별로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배경지식: 보조단에 지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 례

Ⅰ. 인문

				학습일
01	2021학년도 6월	타인의 얼굴	008	월 일 □
02	2021학년도 9월	철학 vs 철학	015	월 일 □
03	2020학년도 3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022	월 일 □
04	2020학년도 6월	사르트르 실존주의	028	월 일 □
05	2020학년도 9월	헤겔 & 마르크스 역사를 움직이는 힘	035	월 일 □
06	2020학년도 11월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042	월 일 □
07	2019학년도 3월	관객은 허구에 불과한 공포 영화의 괴물을 왜 무서워하는가	049	월 일 □
08	2019학년도 6월	자아상태와 스트로크	056	월 일 □
09	2019학년도 11월	공리주의 입문	063	월 일 □

Ⅱ. 사회

				학습일
01	2021학년도 6월	고발 · 고소장 · 내용증명 · 탄원서 · 진정서	072	월 일 □
02	2021학년도 11월	국제해양법	080	월 일 □
03	2020학년도 3월	거시경제론	087	월 일 □
04	2020학년도 6월	한국인의 법과 생활	094	월 일 □
05	2020학년도 9월	경제학 들어가기	101	월 일 □
06	2020학년도 11월	신국제법 강의	108	월 일 □
07	2019학년도 3월	미시 경제학	115	월 일 □
08	2019학년도 6월	물가지수	122	월 일 □
09	2019학년도 9월	월간회계	129	월 일 □
10	2019학년도 11월	파생상품론	136	월 일 □

Ⅲ. 과학/기술

				학습일
01	2021학년도 3월	타워 크레인	146	월 일 □
02	2021학년도 6월	차원해석	153	월 일 □
03	2021학년도 9월	생물과 독	161	월 일 □
04	2021학년도 11월	디스플레이공학 개론	166	월 일 □
05	2020학년도 3월	의약화학	173	월 일 □
06	2020학년도 6월	10퍼센트 인간	180	월 일 □
07	2020학년도 9월	미생물학	187	월 일 □
08	2020학년도 11월	방사광과학입문	193	월 일 □
09	2019학년도 3월	상과 상변화	200	월 일 □
10	2019학년도 6월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	207	월 일 □
11	2019학년도 11월	데이터 통신	214	월 일 □

Ⅳ. 예술, 융합

				학습일
01	2021학년도 3월	플로티노스의 미학과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	222	월 일 □
02	2019학년도 9월	결정적 순간	229	월 일 □
03	2021학년도 3월	진화론도 진화한다 / 이타적 인간의 출현	235	월 일 □
04	2021학년도 9월	헌법학 / 한국헌법론	242	월 일 □
05	2021학년도 11월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250	월 일 □
06	2019학년도 9월	과학혁명의 구조	258	월 일 □

I

인문

인문 지문은 독서 영역의 대표적인 제재로 역사, 철학,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이 소재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철학 분야의 지문이 수능이나 학력평가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철학 관련 지문에서는 주로 한 철학자의 견해나 사상이 드러나는 글, 둘 이상의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하는 글 등이 출제되는데, 자주 출제되는 철학자로는 동양의 공자, 맹자 등과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헤겔 등이 있다.

01 2021학년도 6월 타인의 얼굴

02 2021학년도 9월 철학 vs 철학

03 2020학년도 3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04 2020학년도 6월 사르트르 실존주의

05 2020학년도 9월 헤겔 & 마르크스 역사를 움직이는 힘

06 2020학년도 11월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07 2019학년도 3월 관객은 허구에 불과한 공포 영화의 괴물을 왜 무서워하는가

08 2019학년도 6월 자아상태와 스트로크

09 2019학년도 11월 공리주의 입문

인문 01

타인의 얼굴

2021학년도 6월

♠ 이 글은 초월의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탐구한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 사유[1]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상[2]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 레비나스가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한 배경

2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3]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4] 자기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하였다.

▶ 주체와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

3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 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

▶ 향유의 주체성의 특징

4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5]가 요구되는데,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

▶ 주체가 초월하기 위해 필요한 환대의 주체성의 특징

5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본 것이다.

▶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 주는 타자

6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6]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

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어휘 풀이 ❶ 사유(思惟):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❷ 참상(慘狀):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상황. ❸ 이행(移行): 다른 상태로 옮아감. ❹ 환원(還元)하다: 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❺ 계기(契機):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❻ 배제(排除)하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

주체와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

주체(동일자)	•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 •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함.
타자	•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 타자성(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

레비나스가 인식한 초월의 과정

향유의 주체성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인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 →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음.
이행 ↓	타자의 출현: 주체가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 → 주체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함.
환대의 주체성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
⬇	
주체와 타자의 관계	• 비상호적 관계 –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함. • 비대칭적 관계 –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음.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

레비나스 철학	•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함. –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 •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음.
↓	
•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함. •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문 이해의 길라잡이

이 글은 초월의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탐구한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성을 바탕으로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이란 두 개념으로 주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갈 때 참다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타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본 기존 철학과 달리 레비나스는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01~07]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01 타자 중심의 레비나스 철학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02 레비나스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03 레비나스 철학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04 레비나스의 철학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05 레비나스가 언급한 주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06 레비나스의 철학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07 레비나스 철학의 주요 개념인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8~17]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08 서양 근대 철학은 타자를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

09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은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10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해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11 레비나스는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초월이라고 보았다.

12 레비나스는 향유의 주체성이 자기반성을 계기로 스스로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3 레비나스는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응답해야 한다고 보았다.

14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열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15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서는 자기성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16 레비나스는 서양 근대 철학과 달리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17 레비나스 철학은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 주체와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체 (㉮)	•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 •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함.
타자	• ㉮ 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 ㉯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
↓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	• ㉰ 적 관계 –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함. • ㉱ 적 관계 –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음.

㉮ _____, ㉯ _____, ㉰ _____, ㉱ _____

지문 속 어휘

[1~3]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사유 배제 계기

1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2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3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4 밑줄 친 단어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① 끊어지는
② 사라지는
③ 없어지는

[5~7]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향유 환대 초월

5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　　)라고 한다.

6 (　　)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7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을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　　)이라고 보았다.

정답 1 배제 2 사유 3 계기 4 ① 5 환대 6 향유 7 초월

2021 6월 학평 16번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②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③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④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⑤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1 세부 정보 파악
선택지에 제시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으므로, 각 용어들이 제시된 부분을 찾아 선택지와 비교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021 6월 학평 17번

2 ㉠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②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주체와의 합일을 이룬다.
③ 주체의 분열을 유도하여 자기성이 소멸되도록 만든다.
④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도록 한다.
⑤ 주체를 열린 세계에서 갇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 정보 추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물음에 대한 특정 인물의 대답을 추론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 제시된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타자가 주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1 6월 학평 18번

3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②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었다.
③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놓여 있었다.
④ 하루빨리 다리가 놓여야 학교에 갈 수 있다.
⑤ 꽃무늬가 놓인 장롱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난다.

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글에 제시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와 유사하게 사용된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다의어의 뜻을 잘 구별하여 익혀 두는 것이 좋다.

→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게 사용된 것을 찾는 문제의 경우 단어 앞에 사용된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즉, ⓐ의 앞에 '위에'라는 부사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택지의 '놓이다' 앞에 어떤 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면 좀 더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2021 6월 학평 19번

4 ㉮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타자는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이다.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① ㉮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② ㉮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③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와 다르군.
④ ㉮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군.
⑤ ㉮와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군.

4 다른 관점과의 비교

글에 제시된 레비나스의 관점과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주체와 타자에 대해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주체와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과 비교하여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이때 〈보기〉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음에 유의하도록 한다.

참고 국가

국가는 인류가 출현하고 집단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면서 공동의 이익에 따라 사회 전체를 통괄하고 지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부응하는 조직이 국가라는 형태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란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포괄적인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6월 학평 20번

5 〈보기〉는 학급 토론의 한 장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토론 주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A: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B: 살 길을 찾아온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한다. 그들은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주는 것은 당연하다.

①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군.
② A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군.
③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④ B가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⑤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군.

5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토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기〉에 제시된 '난민'이 이 글에 언급된 '타자'임을 이해하고, 타자에 대한 A와 B의 입장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글에 제시된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의 내용을 토대로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레비나스의 철학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레비나스의 철학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레비나스의 철학이 지닌 가치를 특정 대상에 빗대어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④ 레비나스 철학의 등장 배경을 언급하면서 그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⑤ 레비나스의 철학과 서양의 근대 철학을 비교한 뒤, 레비나스 철학의 우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출 2 문제 변형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레비나스는 서양의 근대 철학과 달리 주체보다 타자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② 레비나스는 주체가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타자를 환대할 수 있다고 여겼다.
③ 레비나스는 향유의 주체성이 열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자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④ 레비나스는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향유의 주체성은 결코 타자를 환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⑤ 레비나스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전쟁의 참상을 접하면서 기존의 주체성과 다른 새로운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02-1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① 앞으로 향하여 가다.
② 일이 점점 되어 가다.
③ 목적하는 방향을 향하여 가다.

기출 5 문제 변형

03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유엔(UN) 산하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협의회는 지난 2021년 7월 우리나라에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난민의 수용이다.
>
> 2021년 1분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0.2퍼센트로, 오이시디(OECD) 국가 평균인 25퍼센트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이라는 이유로, 또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혹은 탈북민을 수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었다.
>
>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면 그들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해 보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보기〉의 우리나라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할 수 없겠군.
② 〈보기〉의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군.
③ 〈보기〉의 난민은 우리나라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로서 타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④ 〈보기〉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것은 초월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군.
⑤ 오이시디(OECD) 국가들의 난민 인정 비율이 25퍼센트인 까닭은 각 국가들이 자기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

03-1 '대로'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 중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거라.
②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③ 나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야 할 것이야!
④ 큰 것은 큰 것 대로 따로 모아 두십시오.

정답 02-1 ③ 03-1 ④

지문 한눈에 보기

지문 완벽 정리!

☆ 내용 요약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한 기존의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초월로의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언급한 주체를 '동일자'로, 타자를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 즉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으로,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고,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을 환대의 주체성이라 하였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가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타자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은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글의 구조

1 레비나스가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한 배경	서양의 근대 철학: 주체 중심의 철학 –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함. →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함.	
2 주체와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	주체	자기중심적 존재 →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함. – 동일자
	타자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 '타자성'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3 향유의 주체성의 특징	레비나스 철학에서의 주체성: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이행해야 함.(초월의 과정)	
	'향유'의 주체성	•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 •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음.
4 주체가 초월하기 위해 필요한 환대의 주체성의 특징	'환대'의 주체성	•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 →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 • 타자의 출현: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함. →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로 작용함.
	→ 주체와 타자의 관계: 비상호적 관계, 비대칭적 관계	
5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 주는 타자	• 타자의 출현: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자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타자는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임.	
6 레비나스 철학의 가치 및 의의	레비나스 철학의 가치	•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함. •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음.
	레비나스의 철학의 의의	•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함. •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레비나스 사상의 성립 배경

레비나스 사상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그의 개인적 불행이자 전 세계의 불행이기도 했던 제이 차 세계 대전의 체험이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은 그는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 평생 독일 땅을 밟지 않았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서양 존재론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의 철학이다. 고유성을 무시하고 타자를 전체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지배적인 사유 방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찰은 아우슈비츠의 체험에 힘입은 바 크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상실하고, 타자를 '나'의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기 위해 국가 사회주의 같은 전체주의의 이념을 강요하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묻는다.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나치즘과 파시즘이 일으킨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명되지 않으며, 또 여러 형태의 휴머니즘을 통해서 방지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동일자("나")로 환원하는 서구 존재론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유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첫째가는 관심은, '나'라는 동일자로 흡수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 타자에 대해 가지는 윤리적인 책임성이 '나'의 '나'됨, 즉 '나'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임을 보이는 것이었다.